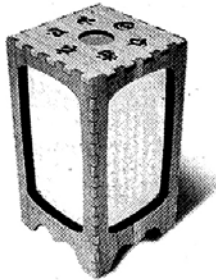


마하몰이 추천하는 추석선물

클릭! 한가위 준비 끝



◇반아심경등

한가위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불자들에게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하몰'이 추천하는 상품을 소개한다. 인터넷으로 발송되지 않고도 품격 있는 선물을 마련해보자.

스님들께는 너무 크거나 현란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이 좋다.

사방에 사천왕상을 조각한 '사천왕등(燈)'과 반아심경을 새겨 넣은 '반아심경등'은 은은한 불빛에 조각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 장식용으로도 좋다. 사천왕등 5만5천원, 반아심경등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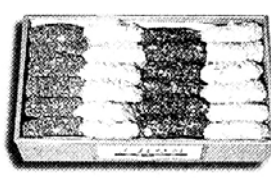
자단향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보원향, 만복침향 그리고 향꽃이가 오뎀나무 상자에 들어 있는 선물세트다. 6만원.

염주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친숙한 불교용품이다. 까칠까칠한 갈색의 색감을 지닌 매화색으로 만든 단주는 9천원이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핸드폰에 불교의 향기를 더할 수 있는 만년지 핸드폰 줄이나 핸드폰 목걸이,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연꽃 차걸이 장식품은 저렴하면서도 불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이다. 4천원~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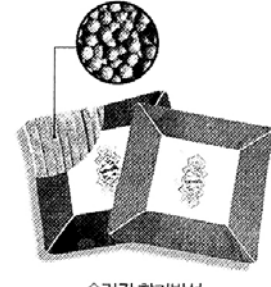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을 수 있는 전통 한과도 좋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전문가



◇연꽃 차걸이



◇산촌유과



◇건강 향기방석



◇순금연꽃카드

스님 화려하지 않은 마음의 선물을

재가자 신행생활에 필요한 용품 선택

티베트어 경전이 들어있는 '해탈전경륜'은 머리부분에 설치된 음향장치에 의해 육자진언인 '옴마니반메훎'이 흘러나오며 돌아간다. 오방을 상징하는 청목색 황백의 등이 밝혀져 스탠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19만8천원.

재가자들이 끼리는 차례에 쓸 수 있는 향이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는 염주 같은 간단한 불교용품 선물해보자.

'현상소원향'은 연소 후에도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며, 재 위에 부처님의 형상과 함께 삼재소멸, 왕생극락, 사업번창, 학업성취, 무병장수 등의 글씨가 나타난다. 12개입, 3만원.

'보원향선물세트'는 정신집중에 좋은

김연식 씨가 만든 정통 한과로 속 흑임자 땅콩 감자유과 등이 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다.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건강향기방석이나 기(氣)배개 등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제품이 알맞다. 건강향기방석은 약초의 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졸음방지 효과가 있다.

행운을 빌어주는 '순금아기부처카드'는 '달마', '연꽃', '일주문등자' 등의 캐릭터가 새겨져 있어 수험생 선물로 많이 판매된다. 카드는 1만 5천원, 목재 케이스에 포장된 것은 2만5천원이다.

문의는 홈페이지(www.mahamall.co.kr)나 전화(02-732-1520)를 이용하면 된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a.com



주부 신행담

내 삶에 주어진 인연 **김필연** (불교여성개발원 복지위원장)

나는 어릴 때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면 마음의 안식을 찾아 절에 갔다. 절에 가면 언제나 부처님께 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다.

하지만 항상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수덕사 견성암을 찾았다. 주지 스님을 만나 뵈고 사람들은 의미 없이도

육 강의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은 아이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야 하나, 무조건 선입견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보니 다들 착하게 보이고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게 되었고 전생의 업과 현재의 악연으로 연결되어서 수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교육 강의 중 어떤 수용자와 인연이 되어서 7년째 교화를 하고 있다. 이 수용자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녔다고 하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책 속에 있으니 공부를 하라

어떤 수용자와 인연... 7년째 교도소 교화

대입검정고시합격 소식에 감격의 눈물

그냥 살아가는지, 아니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무엇인지를 여쭙었다. 또한 나도 출가를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님께서 아가씨는 사회에 미련이 많으니 빨리 결혼이나 하라고 하셨다. 결혼을 해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혼자 살아보면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었다.

몇 년 후 좋은 인연이 나타나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해서 병법한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무언가 보람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천소년교도소에 정신교

고 하여 4년 만에 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하여 합격증을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은 원주교도소에 있다. 가끔 면회를 갔다오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세상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육사원에도 중생을 다 건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무연고자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그들을 보살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들이 나에게 주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김천 원주 교도소를 열심히 다리고 있다. (계속)



서울시龍山區孝昌洞5-152
三角山元曉寺.호창공원후문
電話 02) 704-8065, 713-0475
FAX 02) 704-8064
홈페이지 www.jodong.org.kr

正法眼藏 正傳列世祖師奉供入宗告由戒壇 韓國曹洞宗總本山創宗宣布文

-조계종과 조동종은 선종양대산맥이다-

海音騰了禪師·傳法表信傳
騰騰任運妙心宗
了了靈明自性通
海印發光含萬有
音聲如幻悟真空

불기 2546년 9월 5일, 삼각산 원효사에서 한국조동종총本山 창종위원회는 정법안장(正法眼藏)정전열세조사(正傳列世祖師)봉공(奉供). 입종고유계단(入宗告由戒壇)을 개설하고, 불기 2545년 5월 4일, 수미산(須彌山)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진여사(雲居山眞如寺)에서 조동종 49세로부터 전수한 제 50세(금신학봉)의 사법(嗣法) 계승 절차에 따라 단절되었던 조동종맥(曹洞宗脈)을 복원하고 한국조동종총本山 창종을 선포하였다. 이고유계단은 비구삼의(比丘三義)와 높은 법계를 지닌 수승한 사문들의 임종예우로 동반 50세의 원사(遠師)를 청하고, 51세 입실(入室)수계법요를 조동가풍현리(曹洞家風玄理)인 정편오위(正偏五位)와 조동 49세 사장(師將)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의 전법표신계승(傳法表信繼承)을 수주 독송하고, 입종, 입실자들이 수단입보(收單入譜)된 조동종정법안장(曹洞宗正法眼藏) 및 계절(戒牒)을 배포했다.

석가세존께서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의 법을 가섭존자(迦葉尊者)에게 부촉(付囑)한 이래, 보리달마(菩提達磨)께서 동토(東土)에 도래하여 승산소림사(嵩山少林寺)에서 구년면벽(九年面壁)을 마치고 선종(禪宗)이 개창(開創)되니 사(師)는 서천(西天) 28조, 동토(東土) 초조(初祖)이시다.

불입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종지(宗旨)가 발상지로부터 중국에 처음 전래되어 이조해가(二祖慧可)에게 전법부촉하고, 삼조승찬(三祖僧璨)→사조도신(四祖道信)→오조홍인(五祖弘忍)→육조혜능(六祖慧能)으로 계승되었으며, 육조후대 법손들에 의해 선가오종(禪家五宗)이 창종되었다.

① 육조의 상수제자(上首弟子)인 청원행사(靑原行思)하 석두희천(石頭希遷)→약산유엄(藥山惟儼)→운암담성(雲巖曇成)의 법을 이어 6세손 동산양계(洞山良价)는 조동종(曹洞宗)을, ② 남악(南嶽)하 마조(馬祖)→백장(百丈)→황벽(黃蘗)의 법을 이어 6세손 임제의현(臨濟義玄)은 임제종(臨濟宗)을, ③ 남악하 마조→백장의 법을 이어 5세손 위산영우(滙山靈祐)는 위양종(滙陽宗)을, ④ 청원하 석두→천황(天皇)→용담(龍潭)→덕산(德山)→설봉(雪峰)의 법을 이어 8세손 운문문언(雲門文偃)은 운문종(雲門宗)을, ⑤ 청원하 석두→천황→용담→덕산→설봉→현사(玄沙)→지장(地藏)의 법을 이어 10세손 법안문익(法眼文益)은 법안종(法眼宗)을 창종하였다. 이로써 정법안장의 선종시대가 열리고 일화오엽(一花五葉·달마에인) 정법유방(正法流芳) 선종(禪宗)이 크게 떨치기 시작했다.

조계종(曹溪宗)과 조동종(曹洞宗)은 선종양대산맥으로 조계종은 남嶽하 마조→百丈→黃蘗→臨濟→興化→南院→風穴→首山→汾陽→慈明→揚岐→白雲→五祖→圓悟→虎丘→應庵→破庵→及庵→石屋→太古의 법계순으로 臨濟宗을 거쳐 내려온 남嶽派禪派이고 韓國曹洞宗은 靑原하 石頭→藥山→雲巖→洞山良价→曹山本寂→雲居道膺→同安道丕→同安觀志→梁山緣觀→大陽警玄→投子義青→芙蓉道楷→丹霞子淳→眞歇清了→天童宗珥→雪竇智鑑→天童如淨→鹿門自覺→靑草辨→大明僧寶→玉山師體→雪巖慧滿→萬松行秀→雪庭福裕

→靈隱文泰→還源裕過→淳拙文才→松庭子儼→凝然了改→俱空契斌→無方可從→月舟文載→水山宗鏡→慶山常忠→無明慧經→永覺元賢→爲霖道常→恒濟大心→遍照興隆→清涼法源→東陽界初→道源一信→繼雲鼎耀→增輝新約→圓智通完→能持天性→雲程兼忍→奇量徹繁→妙運地華→鼎峰耀成→虛雲古岩→傅士復灌→海音騰了의 법계순으로 내려온 靑原派禪派으로 서천(西天) 86세, 동토(東土) 59세, 조동(曹洞) 49세이다.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신라입당승(新羅入唐僧)들이 열개(列開)한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맨마지막에 개산(931년)한 황해도해주의 수미산(須彌山) 광조사(廣照寺)가 조동선문(曹洞禪門)으로 조동종 제2조 운거도응(雲居道膺)선사 회하(會下)에 참학심인(參學心印)한 고려 이엄진철(利嚴眞徹)선사가 개조(開祖)이시다.

당대 운거도응선사의 회상에는 입당승승사무외대사(四無畏大師)라 일컫는 형미(道徽), 경유(敬猷), 여엄(麗嚴), 운주(雲住), 혜(慧), 소산광인(疎山匡仁)의 제자 경보(慶甫)등이 있었다.

이엄진철선사는 처광(處光)도인(道忍)등 다섯제자와 조동선종을 신앙하였다. 고려조의 교세쇠미(敎勢衰微)로 선맥은 명멸되었으나 고려조의 일연(一然), 이조의 설잠(雪岑), 매월당 김시습 등이 저술한 조동선의 현리(玄理)인 정편오위(正偏五位) 심현담주해(十玄談註解)등의 전적(典籍)은 조선말 한용운(韓龍雲)선사대까지 이어오고있다.

임제의 대혜종교(大慧宗杲)선사의 간화선(看話禪)과 10세기 경 같은 시기에 태동한 조동종의 광지정각(宏智正覺)선사의 묵조선(默照禪)은 조계·조동종의 양대선종(兩大禪風)이자 원오극근(圓悟克勤)선사의 벽암록(碧巖錄)과 조동종 만승행수(萬松行秀)선사의 증용록(從容錄)은 양대선적(兩大禪籍)이다. 천철백공안은 양대선맥조사들이 일컫던 일대장관으로 조계종(임제)을 빼고 조동종을 말할 수 없고, 조동종을 빼고 조계종을 말할 수 없다. 한국선종사에 일천여년간 단절된 조동선맥의 실종은 간화선(看話禪)만존속되고 조동선(曹洞禪, 묵조선)을 폄하해왔다. 이제 본종은 전래된 조동종명(曹洞宗名)을 공칭하고 종헌(宗憲)을 제정하여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하고 혜명(慧命)을 사속(嗣續)하여 정혜쌍수(定慧雙修)와 이사무에(理事無碍) 선교병립(禪敎並立)의 교의(敎義)를 실천할 것이며, 조동선의 특장인 순선(純禪) 생활선풍(生活禪風)을 이끄러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성불도생(成佛度生)에 기여하려한다.

한국조동종은 불기 2545년 5월 4일, 수미산(須彌山)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진여사(雲居山眞如寺)에서 조동종제 49세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를 사장(師將)으로 사법계승(嗣法繼承)한 제50세 금신학봉(今禪鶴峰)으로 하여금 단절된 조동선맥을 복원하고 한국조동종총本山창종을 선포한다. 창종대의 세수(世數)는 서천(西天) 87세 동토(東土) 60세, 조동(曹洞) 50세부터 기산(起算)한다.

證明
一誠衍心 중국운거산진여사 방장
師將
海音騰了 조동종주·조동제 49세
창종위원장
금선학봉(今禪鶴峰) 50세, 총무원장

창종위원
월전금당(月田金堂) 조동선학원개강주
달제지운(怛帝智雲) 양평추읍산금강사
실상자원(實相慈元) 서울우면산보광사
덕운정민(德雲正敏) 부산해운대폭포사
고경수경(古鏡修鏡) 서산삼왕산지장사
남당효진(南堂曉眞) 남해망치산도강암
청원석룡(靑原石龍) 계룡산대원선원

서광청산(瑞光靑山) 제천용두산옥룡사
도림청월(道林靑月) 정선법보선원
묵조도인(默照道忍) 아산모산금강선원
일우법경(日佑法鏡) 일산금당선원
법상영공(法相永空) 김해시산정암사
법성태영(法性泰榮) 남한산수인정사
법천청운(法泉靑雲) 진주금옥사
일탄행호(日呑行昊) 삼각산원효사

보현일현(普賢日賢) 삼각산원효사
보광일도(普光日度) 포항천광선원
무착등흥(無塵騰興) 논산극락선원비구니
문수보성(文殊寶聖) 논산극락선원비구니
일허법정(日虛法頂) 온안안심사
정원태허(淨園太虛) 서울중량구선은사
선행선혜(善行宣慧) 형성죽림산해심사
원담혜심(圓潭慧心) 조동선학원